

총선 50여일 앞으로 출마자 윤곽 서서히 분위기 고조

제20대 국회의원 선출하게 되는 4.13 총선이 50여일 남겨두고 각 정당별 후보자과 선거구별 출마자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서서히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 전복도당은 지난 21일 4.13 총선지역구 공천 신청의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11개 선거구에 38명이 신청해 3.4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은 광주 3.50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민의당 도당은 창당원 지 불과 3주도 채 되지 않았고 5개의 시·도당만이 창당원 상황에서 진행된 공천신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자랑했다.

국민의당은 23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 기초 자료 수집 및 신청자 면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전복도당은 정동영 전 의원을 통해 전복권 바람몰이를 기대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이번 총선에서 호남을 석권해 아당다운 아당이 출현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국민의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복도당은 전북지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23명이 공천을 신청해 2.09 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동안 전북 텃밭인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23일에는 컷오프 개별통보가 예정돼 있다. 이어 24일은 탈락자 이의제기, 25일 탈락자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탈락자들이 결과를 수용하면 문제없지만 반발시 탈당 후폭풍 등 '찾잔' 속 태풍이 되고 있다.



참배하는 정동영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에게 참배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공천심사 착수

오늘 선대위 출범 총선체제 돌입

정동영 통한 전복권 바람몰이 기대

더불어민주당 전복도당은 전북지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23명이 공천을 신청해 2.09 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동안 전북 텃밭인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23일에는 컷오프 개별통보가 예정돼 있다. 이어 24일은 탈락자 이의제기, 25일 탈락자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22일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2016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영수 의원(전주4)은 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사후관리를 따져물었고, 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센터의 예산 변경 시 사유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체계를 갖추라고 지적했다.

최후열 의원(부안1)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예에 따르면 목표 계획표를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다며 2015년도와 2016년도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무소속 비례)은 여성경력단절 사업 등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위주의 운영보다는 여성경력단절과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컷오프 개별통보 예고

25일 탈락자 확정 발표키로

반발시 '탈당 후폭풍' 우려

은 공천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신청하지 않은 최법서(전주완산갑), 나경관(전주덕진), 송용재(군산), 정영환(김제완주) 등 4명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퇴했다.

새누리당 전복도당은 익산시장 선거 등 제보될 선거에서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정동영과 함께 정치 행보 이어가겠다"

최진호 등 도내 광역·기초의원 더민주 탈당 국민의당 합류

더민주 도당 "탈당 이유는 꼼수... 분열의 정치로 비난받을 것"

도내 전현직 시도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최진호 김종철 전북도의원과 황만길 송정훈 전주시의원 김희수 전 전북도의회의장은 22일 전북도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동영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행보를 같이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랜기간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당을 떠나려하니 착잡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오죽하면 반평생을 보냈던 당

을 떠날 결심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더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평화역행, 민생 역주행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과 담합 공생하고 있다"면서 "더민주당은 정권교체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민주당은 전복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전복이 더민주당에 현신적 지지를 보냈지만 전복의 정치와 경제는 오히려 후퇴했고 중앙에서 전복정치의 존재감을 사라졌다"며 "정치력 없는 무능한 전복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의당 합류를 공식 선언한 정동영 전 의원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의 대외에 합류해 전북의 정치와 경제에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정권교체가 가능한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쇠락을 동시에 겪고 있는 전북에게 이번 변혁기는 아주좋은 기회"라면서 "이번 기회를 전북도민의 기회로 삼아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복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들의 탈당은 꼼수이며 변명에 불과하다. 분열의 정치, 배신의 정치, 무고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신광영 기자

"농업경영비 절감 정부 적극 예산투입을"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사진)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료·농약 등 농자재 비용과 사료비, 난방비 등은 농업경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농가당 평균 경영비는 2011년 1,770만원에서 2014년 2,187만원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겨울철 시설원에 농가의 평균 난방비 비중은 30~50%에 달해 농가들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 농업경영비 절감 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최근에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제출받은 '2015년 국정과제 추진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정책급인 인하,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탈냉공동체 육성과 함께 에너지 절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개선해 2014년 7,920ha였던 지원면적을 2015년에는 9,187ha로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전문선거자

도선관위, 달라지는 선거제도 공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 선거제도를 공고했다.

먼저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 금고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의 등록서류에 대해사간 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력 등을 공개했지만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대표참관인을 선관위가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도 대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광영 기자

김종희 예비후보, 정대철 고문과 민생 청취

국민의당 김종희 제20대 김제, 부안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최근 정대철 고문과 김제, 부안지역 민생 청취에 나섰다.



이날 오후 1시께 김제 지역에 도착한 정 고문은 김종희 후보와 점심 회동을 가진 후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어려운 지역 현실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김 후보와 정 고문은 김제시 요충동에 위치한 김종희 선거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지역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고문은 "시대의 흐름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신하고 깨끗한 김종희 후보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정치, 포용의 정치를 강조하며 "지역현안에 밝고 정책기획력이 뛰어난 김종희 후보 같은 분이 필요하다"며 "김제, 부안의 발전은 김종희 후보의 두 손에 달려있다. 잘 부탁한다. 함께 바꾸어보자"는 결의의 뜻을 다졌다.

김종희 예비후보는 "호남평야의 발전이 우리나라 농업의 기둥"이라며 전북의 농, 산업 발전과 혁신 방안, 열세농민들의 소득보전 대책 등 농촌 발전의 장단기 계획을 정대철 고문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저 총선 출마합니다

"평범한 이들도 잘 살수 있도록"

국민의당 송강 예비후보, 출마 공식화

국민의당 송강 변호사는 22일 20대 국회의원 김재부안(예정·사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만큼 절망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기존의 거대양당은 국민의 고통을 도외시한 채 내실 없는 적대적 공생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선택이 바뀌어야 한다. 선택이 바뀌면 정치가 달라지고 정치가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삶이 바뀌면 내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어려운 유년시절을 겪은 대한민국의 대표 휴수자로, 우리의 이웃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고 밝히며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와 희망'이다. 우리 앞에 공정한 세상이 구현될 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다. 평범한 이들도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해 왔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안호영 예비후보, 으뜸 교통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진·무·장·임·사진)는 22일 무주군청 기자회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촌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무진장 임실 달리는 으뜸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농산촌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 어르신들과 같은 교통비 무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통복지가 열악한 무진장과 같은 농산어촌을 우선적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시내버스 요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 후보는 "무진장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유지하기 위해 3개 군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하지만 버스노선 조정이나 노후버스 교체에 강제하기 어렵다"며 "주민생활권이 걸리는 무진장의 특성상 3개 군이 공동출자에 공공기관을 설립, 단계적으로 버스를 인수를 추진하는 교통편의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을 산촌에 우선 지원하고,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 확대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거자

국민의당 김연근 예비후보, 알맹이공약 발표

국민의당 김연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익산을·사진)가 22일 민생일침이 16공약 두번째 정책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번 시리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됐다. 김 예비후보는 ▲익산(을)지역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공공서비스 주택 조성 ▲효문화 건강복지센터로 확대개편 ▲노인돌봄기부은행 설립 ▲장애인평생교육센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폐기 ▲전북통일교육관 익산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지금쯤은 제 가슴에 못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셨기에 노인복지 기준선을 전국최초의 조례로 제정했을 만큼 전라북도 노인정책에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있다"며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익산(을)지역은 지역 내에서도 으뜸신과 장애우를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내 형평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국정과제와 지역사업을 혼합한 산업과 문화·관광파트로 구성된 세번째 정책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한명규 예비후보 27일 선거사무소 개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한명규 예비후보(전주 완산을·사진)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7일 오후 1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한 후보의 사무소에서 열린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양현섭 예비후보, 송천동 변전소 설치 의견 수렴

새누리당 양현섭 예비후보(전주 덕진·사진)는 22일 송천동 변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양 후보는 "변전소 설치가 지역 발전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사업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결코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예코시티 조성시 친환경을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전소를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시내 중심에 설치하는 것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보다 합리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